

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69
------	----

2014. 9. 22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4년 9월 4일

나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】 제1차 기획
경제위원회(2014년 9월 22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
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-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Ⅲ . 주 요 내 용

▷ 수여대상자

1) 명예시민 : 총 16명(남 14, 여 2)

가) 국적별 : 미국 4, 중국 3, 대만 2, 독일 2, 캐나다 2, 나이지리아 2, 덴마크 1

나) 직업별 : 해외도시시장 2, 외교관 2, 교육인 1, 경제인 10, 법률인 1

※ 서울 거주자 11명, 해외 거주자 5명(서울 방문 외빈 2)

▷ 추진경과

○ 2014. 6.17 ~ 7.31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추천서 접수 (총 26명)

○ 2014. 8.20 ~ 8.26 공적 및 거주기간, 범죄사실 등 조회

○ 2014. 8.27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개최(추천자 26명 중 16명 선정)

▷ 수여예정일

○ 2014. 10. 28 「명예시민의 날」 기념식 행사시

▷ 관련근거

1) 수여대상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2조

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

2) 수여대상자 결정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1항

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

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

- 3) 서울시의회 동의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2항
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 다만, 긴급한 사유 발생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

IV 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윤 병 국)

가.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서울 시정에 공로가 뛰어난 모두 16명(남 14, 여 2)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나. 명예시민 선정절차 및 운영현황

- 서울시는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정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외국인이나 방문 외빈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.
-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, 후보자에 대한 심사, 시의회의 동의 과정을 통해 엄격히 진행되며,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.
-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을 살펴보면, 최초(1958년) 공로시민증 수여 (1958~1969)부터 현재까지 모두 92개국 694명(시방문 외빈 113, 시정 공로자 411, 기타 170)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,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 【참고자료 1】

< 국적별 명예시민증을 수여현황 >

계	아시아	유럽	북미	중남미	오세아니아	아프리카
694	168	203	199	65	19	40

다.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

-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서울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,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중 선정하고 있음(조례 제2조제1항).
- 그러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아도 “서울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(조례 제2조제2항).
- 금번 수여 대상자 16명은 모두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,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자, 서울시 방문 외빈, 현지 외국인 중 시정기여도가 인정된 자 등으로 대내·외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고, 시민의 생활 및 문화 활동 증진과 서울시 경제 발전 등에 크게 공헌을 한 사람 가운데 선정된 것임.
- 따라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천되고 ‘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’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판단됨.

라. 명예시민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

- 현행 조례는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정참여 기회 제공, 서울시립미술관·서울역사박물관·도시공원의 입장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음.
-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향유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.
-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의 당초 취지인 국제교류협력과 우호증진, 서울시 브랜드의 제고에 기여하고,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‘명예시민의 날’을 비롯한 행사의 개최, 서울시정 소식지의 제공, 명예시민 상호간의 교류지원 등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됨.

V. 질의 및 답변요지 :

- 명예시민증 수여를 국가별로 정해진 규정이 있는가? 국가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녀비율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?
 - 기획조정실장 답변 :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있음. 다양한 국가에서 명예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별 안배와 남녀 비율 등도 고려하겠음.
-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되며 수여대상자가 외교차원에서 수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 또한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?
 - 기획조정실장 답변 : 서울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, 명예시민 상호간의 교류지원과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높일수 있도록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음.
- 명예시민증을 수여심사 위원회에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를 개선하기 바람.
 - 기획조정실장 답변 : 개선하겠음.

VII. 심사결과 : 「원안 가결」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

의안 번호	6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4년 9월 4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수여대상자

1) 명예시민 : 총 16명 (남 14, 여 2) ※세부명단 별첨

가) 국적별 : 미국 4, 중국 3, 대만 2, 독일 2, 캐나다 2, 나이지리아 2, 덴마크 1

나) 직업별 : 해외도시시장 2, 외교관 2, 교육인 1, 경제인 10, 법률인 1

※ 서울 거주자 11명, 해외 거주자 5명(서울 방문 외빈 2)

나. 추진경과

○ 2014. 6.17 ~ 7.31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추천서 접수 (총 26명)

○ 2014. 8.20 ~ 8.26 공적 및 거주기간, 범죄사실 등 조회

○ 2014. 8.27 명예시민증 수여심사위원회 개최
(추천자 26명 중 16명 선정)

다. 수여예정일

○ 2014. 10. 28 「명예시민의 날」 기념식 행사시

라. 관련근거

1) 수여대상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2조

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및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

2) 수여대상자 결정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1항

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

3) 서울시의회 동의 : 「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」 제4조 제2항

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. 다만, 긴급한 사유 발생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붙임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명단 1부.

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명단

<서울 거주자 11명>

연번	성명 (출생연도)	국적 (현직)	공적
1	데스몬드 아카워 Desmond Akawor (1964)	나이지리아 (주한 나이지리아 대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8. 5월 주한나이지리아대사 부임 ○ 한국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역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프리카 각국이 추진하는 개발 프로젝트 소개 - 주한 아프리카 공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 ○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의 모임에서 리더십 발휘, 아프리카의 도시와 서울의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 ○ ‘아프리카의 날’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-아프리카 우호증진
2	데이빗 채터슨 David M. Chatterson (1956)	캐나다 (주한캐나다 대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1.11월 주한캐나다대사 부임. 2014.10월 본국으로 귀임 ○ 한-캐나다 수교 50주년 관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○ ‘2014 서울 캐나다 위크’ 행사 개최를 통하여 서울시민과 캐나다인과의 소통의 장 마련하여 양국 우호증진 ○ 고위급 방한 행사 지원 및 일정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스티븐 하퍼 총리 2011년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 -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턴 캐나다 총독,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 위해 방한 - 스티븐 하퍼 총리 2014년 3월 한국-캐나다 FTA 체결을 위해 방한 ○ 2012년 서울시장과 논의하여 “Green Rooftop project”라는 친환경 사업 진행
3	토마스 가이어 Thomas Geyer (1969)	독일 (한독 상공회의소 회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독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양국 시장조사, 기업간 연결, 사절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 제공 ○ 정치, 학술, 비즈니스 전문가의 연례 회의인 DKF(한국-독일 포럼) 멤버로 활동 ○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자동차부품위원장으로 활동,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양국 간 교류와 비즈니스 관계 발전에 공헌 ○ 한국과 독일 사이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위해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(독일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의 네트워크) 멤버로 활동 ○ 2011년 외국인 모범 투자자로 뽑혀 법무부로부터 영주권 자격 부여 받음
4	마이클 베테르 Michael Vetter (1968)	독일 (스투트가르트 스포츠 카 ㈜ 사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발레 영재 육성 문화공헌 프로그램 ‘드라이브 유어 드림’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의 발레 영재 발굴·육성을 위한 문화공헌 프로그램 - 연 2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선발된 장학생에게 무용수와의 마스터클래스 제공 및 장학금 지원 - ‘발레 드림 티켓’을 통해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등 문화소의 계층에게 무료 관람 프로그램 진행 ○ 서울발레시어터와의 결연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된 창작활동 지원 ○ ‘05년 23명의 직원에서 현재 200여명의 직원 고용, 서울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

포인 트	포인 트 (생애연표)	국 적 (현 직)	공 적
5	도택전 Du Zetian (1957)	중국 (주한중국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(CCPIT) 한국대표부 수석대표 -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수입협회의 중국 광둥성, 강소성, 사천성 등의 지역과 무역교류 달성에 기여 ※ CCPIT : 한국의 KOTRA와 유사한 중국 무역협회 ○ 한중 경제협력프로젝트 - 상하이엑스포와 여수엑스포의 교류 및 협력증진 ○ 한국의 투자환경 연구, 중국기업에 소개 - 인천자유경제구역청, 새만금개발청 등 한국의 경제무역특구 조사 및 연구하여 중국 기업에게 투자 및 알선
6	김의송 Jin Yisong (1957)	중국 (주한중국 상공회의소 회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중 해운업계 발전을 위한 기여 -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해운 그룹의 한국 대표 - LNG 선박 3척, 6억불 상당의 선박을 한국기업이 건조할 수 있도록 강력 추천하여 계약을 성사시킴 - 직원 선발시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, 서울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 ○ 한국의 주요 경제단체, 상협회, 기업 등과 밀접한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한국기업 및 경제단체의 중국행을 조성
7	이화 LIHUA (1978)	중국 (베이징 이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베이징 서울클럽 활동 (2013년 창설) - 서울과 중국도시의 가교역할 등 인적 네트워크 분야에서 활동 - 온라인 소통을 통한 다양한 시정자료제공 및 교류활성화 - 중국 내 주변인사들에게 서울에 대한 호감 전파 - 서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기여 ※ 현재 베이징에 서울클럽 11명 활동 중
8	한무량 Han Wu Liang (1970)	대만 (주화방관광 대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화 및 동남아권 관광객 유치에 기여 - (사)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부회장, (사)한국여행업협회 중국 인바운드 위원장으로 활동 - 미얀마에서 최초로 한국관광 상품 설명회를 개최 - 서울 소재 고급식당과 MOU체결하여 서울 방문 관광객에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○ 서대문구 '불우 100가정 보듬기' 사업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참여 - '11. 7월 ~ 현재 매월 30만원 지원
9	이충현 Lii, Chung-Shiann (1957)	대만 (주동보성 대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중 우호증진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 - 한성화교협회 회장, (사)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지문위원으로 활동 ○ 서울시 중구, 서대문구, 마포구 불우가정돕기 기부 운동 적극 참여 - '12. 10월 ~ 현재 서대문구 '불우 100가정 보듬기' 사업을 통해 매월 50만원 지원 등 - 마포구 장애인 복지센터 장애우들에게 매년 중국음식 초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후원을 함

연번	성명 (출생연도)	국적 (현직)	공적
10	이브라힘 압둘가니 Ibraheem Abdul Ganiyi (1970)	나이지리아 (스타인터 내셔널(주) 대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지방경찰청 의사자문위원회 위원 - 외국인과 관련된 치안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 ○ 서울용산경찰서 외국인범죄예방위원회 위원 ○ 16년간 한국생활을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 -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이지리아인들에게 법률자문활동 - 용산구청 직원들과 이태원지역 청소봉사활동(매주 수요일)
11	제프리 존스 Jeffrey D. Jone (1952)	미국 (국제 변호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로서 한미 사이의 경제협력관계 강화 ○ 서울국제경제자문단(SIBAC) 자문역 및 외국인투자자문회의(FIAC) 부위원장 - 서울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관련 자문 - FIAC 운영규정 개정, 분과위원회 설립, 위원 확대를 통해 FIAC 활성화 기반 마련 ○ 미래의동반자재단을 설립하여 국내 실업가정의 대학생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

<해외 거주자 5명>

연번	성명 (출생연도)	국적 (현직)	공적
1	크리스토퍼 포브스 Christopher Forbes (1950)	미국 (포브스 부회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1년 서울국제경제자문단(SIBAC) 창립멤버 - 2001년 SIBAC 창립에 중추적인 역할 ○ 총 8회 SIBAC 총회 참석, '14 총회 참석 예정 - 언론분야 자문 및 지원 ○ 매년 SIBAC 운영과 총회 개최를 위해 지원
2	루돌프 슬레이스 Rudolph A. Schlais (1941)	미국 (상해 ASL 자동차 과학기술 회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1년 서울국제경제자문단(SIBAC) 창립멤버 - 2001년 SIBAC 창립에 중추적인 역할 ○ 총 11회 SIBAC 총회 참석, '14년 총회 참석 예정 - 컨설팅분야 자문 및 지원 ○ 매년 SIBAC 운영과 총회 개최를 위해 지원 ○ 서울시-GM社 관계 구축에 이바지
3	로날드 앤더슨 Ronald J. Anderson (1928)	캐나다 (금융 보험 컨설턴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1년 서울국제경제자문단(SIBAC) 창립멤버 - 2001년 SIBAC 창립에 중추적인 역할 ○ 매년 자문단 운영과 총회 개최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 - 보험분야 자문 및 지원 ○ 총 12회 SIBAC 총회 참석, '14년 총회 참석 예정

연번	인물 (출생연도)	국적 (현직)	공적
4	앙커 보예 Anker Boye (1950)	덴마크 (오덴세市 시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05년 및 2014년 서울시대표단 접견 등 우호관계 형성 ○ 2014년 서울시-오덴세시간 우호협력 MOU 체결하여 양 도시 관계 발전 ○ 서울 안데르센 동화 공원 조성 사업 협력 및 관련 전문가 파견 지원 약속 등 ※ 서울시 방문 외빈 (10월초 방문 예정)
5	애니스 파커 Annise Parker (1956)	미국 (휴스턴市 시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월 서울 방문시 서울-휴스턴 우호교류협약 체결 예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국 텍사스 주의 가장 큰 도시 (한국교민 33,000여명) - 21세기 에너지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셰일가스·오일 개발붐 - 한국석유공사, 삼성전자, 현대중공업 등 국내업체 30개 진출 - 서울과 미국 휴스턴 도시의 가교역할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 기대 ※ 서울시 방문 외빈 (10월초 방문 예정)